

## '24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8	8.21	회의실	7/12	4	1	12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박양우·박종수·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희(7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4	4	0	2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0	0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 용광로>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해 소주제별 균형적인 시간 배분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24.8.
"	전기차 주차 수난 등 관련 문제 계속해서 관심을 바람	<뉴스투데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대책 만들어도 '유명무실'(8.21), <남도탐구생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 소화장비 미흡(8.29) 등 방송 조치	"
"	의대 정원 문제 계속 보도를 바람	<뉴스데스크> “한 개 신설이나 2개 신설이나”(8.30), 의대설립 여론조사 시작됐지만(8.30), 보건노조 파업..‘의료대란’ 심화되나(8.26), <시사특 라이브> 의대 정원이 당정 갈등으로(8.29) 등 방송 조치	"
"	인공지능, 군공항 이전,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	<5시 뉴스> 광주시, AI 기업 10곳과 업무 협약(8.27), <뉴스투데이> 무한공향은 ‘답보’ 경쟁 신공항은 ‘활활’(8.23) 등 방송 조치	"
교양	<남도탐구생활>, 광주의 문화와 인재를 알리는 기회되길 바람	<남도탐구생활> 뉴스탐구생활(매주 화~목), 부처현썸! 사찰에서 즐기는 디제잉(8.28) 등 방송 조치	"
"	<남도탐구생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회복세 자막만 들어감. 이해가 쉽도록 자막, 그래픽 등 활용 바람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남도탐구생활> 계절에 맞게 우리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특산물 등 소개 바람	<남도탐구생활> 2024 ACC 월드뮤직페스티벌(8.28), 몸도 마음도 튼튼, 아빠가 차린 밥상(8.28), 더 글로리한 영광여행(8.22) 등 방송 조치	"
"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 나눔을 생각하는 기회가 됨. 이웃과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바람	<뉴스투데이> 구두수선 기부천사..“기부할 수 있어 행복”(9.1) 등 방송 조치	"
기타	수어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 바람	화면해설, 수어, 자막방송 등 프로그램별로 시행 중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월 29일~31일 <뉴스투데이>에서 하단 홀림 자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방송됨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시스템 점검 조치	"
합계		10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시사 용광로>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해 소주제별 균형적인 시간 배 분 아쉬움	기계적 중립을 넘어 사안을 입체적 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음	○		
"	전기차 주차 수난 등 관련 문제 계 속해서 관심을 바람	전기차와 관련한 안전 문제는 물론 캐스퍼 생산 등 지역경제와도 맞물 려 있는 현안인 만큼 예의주시하겠 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의대 정원 문제 계속 보도를 바람	전남 국립 의대 문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냉정한 시선으로 보도에 임하겠습니다	○		
"	인공지능, 군공항 이전,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	인공지능과 비엔날레, 광주군공항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		
교양	<남도탐구생활>, 광주의 문화와 인재를 알리는 기회되길 바람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등을 발굴하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남도탐구생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회복세 자막만 들어감. 이해가 쉽도록 자막, 그래픽 등 활용 바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	<남도탐구생활> 계절에 맞게 우리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특산물 등 소개 바람	우리 지역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 나눔을 생각하는 기회가 됨. 이웃과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바람	캠페인 외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수어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 바람	소외 계층의 방송 시청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월 29일~31일 <뉴스투데이>에서 하단 흘림 자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방송됨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8월)

일 시	2024. 8. 21.(화)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박양우·박종수·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희(7명)	
	회사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군 공항 이전 문제, 의대설립, 광주비엔날레 개막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광주MBC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뤄주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자 수고하는 방송인들에게 감사드리며, 8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MBC는 창사 60주년을 앞두고 시청자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 강필오 위원 : -<남도탐구생활>을 시청했다. 충주시에 홍보맨이 있다면 광주 동구청에는 미소계장이 있다. 요즘 핫한 릴스의 주인공 미소 계장님의 촬영 꿀팁을 소개했다. 숏폼 영상이 유행하면서 관공서, 공공기관들의 홍보 방향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딱딱하지 않고 친밀감 있는 충주 홍보맨의 명성을 따라잡을 광주의 홍보맨, 동구청 홍보실 미디어소통 계장의 노하우와 홍보 방안을 나눠져서 유익했고, 좋은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방송이었다. 피카소의 손끝에서 탄생한 도예 걸작들을 무료로 관람할 기회에서는 현대 미술의 천재 피카소의 작품이 광주에 떴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준비한 순회전이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8천여 명이 관람했다고 한다. ‘피카소 도예’ 원본 전시, 작품 제작 과정, 영상물 상영도 준비돼 있다고 하니 많은 분이 관람하면 좋겠다.  
-<전설의 타이거즈> 김성한, 전설의 충격 고백 편에서는 1995년까지 타이거즈 원클럽맨으로 뛰며 7번의 우승을 경험한 전설의 김성한 전 감독과,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2009) 등 야구 관련 책 20여 권을 집필한 야구 칼럼니스트 김은식 작가님의 화려한 이력, 김성한 첫 자서전 도전, 해태 안티 김은식 작가가 해태 전팬이 된 이유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눠주셔서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을 함께할 수 있었다. 다음 편도 기대가 된다.  
-8월 연중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에서는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따끈한 콩나물국밥을 단돈 천 원에 제공하는 광주 광산구 천원식당에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저렴한 한 끼 식사를,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행복한 일 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식당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매일 새로운 <더불어 삽니다> 캠페인을 돌아보았다. 의미 있고 마음에 꼭 박히는 내용들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웃과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바란다.
- 박종수 위원 : -7월 25일 <남도탐구생활>에서는 여름맛이 기획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는 피카소 도예전, 광주 미술 시장의 축제 아트 광주24-아트마켓과 광주 동구청의 이색적인 홍보팀을 소개하였다. 지자체 홍보팀이 SNS 등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지역 홍보를 직접 제작하여 홍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관심을 유발될 수 있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다. 여름철 가을철 남도 지역에 불거리, 먹거리, 특산물과 출하 시기 등을 소개하여도 좋을 거 같다.
- 유한별 위원 : -<시사 용광로>에서 다룬 쌀값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웠다.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유통업체 등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다뤘다면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이경주 위원 : -<남도탐구생활> ‘뉴스탐구생활’ 편 의견이다. 뉴스보다는 캐주얼하게 지역 소식을 알려주는 섹션 중에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회복세’라는 타이틀로 전해지는 내용이 있었다. 자막 또는 인포그래픽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수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23년 00만 명 이용에서 24년 00만 명 이용 증가했다는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식이다.

-<뉴스투데이> 8월 9일 자 MBC 방송 중에 일부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모두 다 뉴스 프로그램에서만 제공된다. 일부 교양 프로그램 등에도 수어 통역 서비스가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 이숙희 부위원장 :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지 마라 광주 곳곳에 전기차 수난 뉴스 의견이다. 최근 광주와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전기차 포비아”라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로 인해 전기차의 등록 대수는 현재 55만 대에 이른다. 하지만 요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차 소유자들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 ESS 화재 사건을 떠올랐다. 당시 리튬 기반의 ESS의 화재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에 제조사 혹은 기관에서 정밀 안전 검사 등을 수행하였고 각종 안전 정책이 나왔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도 전기차 제조사 그리고 배터리 제작사 전기안전 관계기관, 국내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제조사에서는 자체적인 리콜을 시행하여 정밀 안전 조사를 시행한다면 우리 사회의 “전기차 포비아”는 줄어들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남도탐구생활>은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구성도 좋지만, 콘텐츠 건의를 드리자면 광주 관련 유튜버 소개는 어떨까? 오래된 감스트나 최근 유명한 조나단, 이 사배도 있지만, 아직 유명하지는 않지만 독특한 주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광주 출신 유튜버 또는 광주를 소재로 하는 유튜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유튜버들을 소개함으로써 광주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광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더 큰 무대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도탐구생활>이 광주지역의 문화와 인재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사 용광로>에서 한 학년을 200명으로 구성하는 전남의대 신설을 서로 유치하기 전남 동부와 서부 지역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20~30년 된 전남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사태를 생각할 때, 이러한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이번 전공의 사직만으로도 광주, 전남 유일대학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매월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무기력함을 느껴 사직하고 있으며, 필수 의료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을 바꾸고 있다. 신설 의대가 실제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충분한 의사가 지역에 머물러 근무할지는 불확실하다. 단지 현재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동부와 서부 주민의 갈등만 일으키는 토의일 수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의료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 계속 보도를 바란다.

- 정희 위원 : -8월 8일 저녁 뉴스에서 무안공항 이전 관련 내용과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박양우 대표님의 설명은 많은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였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7월 22일 AI 기술 활용으로 혁신적인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는 내용은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생각하며, 7월 30일 광주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광주의 교육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8월 5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무안국제공항 확장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7월 25일 보도한 내용은 확장계획이 실현되면 지역관광,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되었다. 8월 10일 무안공항 교통접근성 개선방안은 이용객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주, 호남지역의 공감을 끌어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

능,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비엔날레라는 굵직한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시아의 빛을 지향하는 광주문화방송이 김치대전과 관련한 콘텐츠와 아시아의 빛을 연계하여 제공하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인공지능, 군공항 이전,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현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시사 용광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최선의 선택은? 편을 인상 깊게 봤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정책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이미 오래된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주제는 아니지만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방송에서 다룬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 다만, 다음 몇 가지는 추후 보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첫째, 토론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인 토론자가 찬성과 반대 2:2로 균형감 있게 구성되어 있어 토론자 구성에 있어서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방법으로 나누어 구성하다 보니 양쪽의 논리만 주장함으로써 합일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물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를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도 의미 없지는 않지만, 정책에 관한 토론의 경우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쪽 의견을 포괄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학이나 정책학 교수 또는 이 분야 정책 경험이 있는 학제적 전문가를 한 명이라도 섭외해 출연시켰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둘째, 위 주제의 하위 소주제들에 대한 균형적인 시간 배분이 아쉬웠다. 시간 배분에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번 주제의 하위 주제 또는 변수로 환경성과 경제성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그러나 전반부 환경성 측면에서 많은 시간을 쓴 바람에 막상 경제성 측면은 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사회자가 시간 배분에 유념해야 할 것은 물론, 토론자들에게도 중언부언하며 시간을 끌지 않도록 통계 등이 포함된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를 해주도록 사전에 요청해두면 좋을 것이다. 셋째, 소주제 선정에 있어서 환경성과 경제성 못지않게 인간의 행복권 측면도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의 궁극적 근거는 환경성이나 경제성을 뛰어넘어 산이든 케이블카든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한다면 사람이 빠지면 환경성과 경제성이라는 일종의 인간 행복을 위한 도구가 절대 목적이 되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케이블카 문제는 인간의 행복권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물음이 논의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남도탐구생활>에 관한 의견을 많이 주셨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는 물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안국제공항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보다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활용 등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다.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캠페인 외에도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 수어 방송은 뉴스 외에도 계기성 프로그램 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시사 용광로>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균형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기차와 관련한 안전 문제는 물론 캐스퍼 생산 등 지역경제와도 맞물려 있는 현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겠으며, 국립 의대 문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보도에 임하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광주비엔날레,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의견에 감사드린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적 사항이 있다. 7월 29일과 31일 사이 <뉴스투데이>에서 하단 흘림 자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방송됐다는 내용이다. 사소한 방송 사고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방송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해야겠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분이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이것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끝.